

“음식량 줄이고, 상춧값 더 받고” 전통시장 생존 안간힘

시장 내 식당 등 원가 부담 ‘한계’ 고물가·식자재비 상승 ‘궁여지책’ ‘저렴하다’ 시장이미지 고수 딜레마 ‘손님 끌일까 예전 가격 유지’ 한숨

서민들이 주로 찾는 전통시장 내 식당과 상점들이 식자재비 폭등을 이기지 못하고 궁여지책으로 음식량을 줄이거나 채솟값을 추가로 받는 등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통시장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장기화되는 고물가와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식자재값 인상에 따른 고육지책이다.

일부 상인은 ‘저렴하고 푸짐하다’는 전통시장의 이미지를 잃거나 손님의 발길이 끊길까 전전긍긍하며 손해를 보면서도 음식값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찾은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이곳에서는 지난 여름 이상기후와 고

물가로 인해 급격하게 오른 식자재비와 공공요금 등 가게 운영 제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최근 소폭이나마 가격을 인상했다는 상인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었다.

정육점 사장 송모(53)씨는 “돼지고기 단가가 오른 탓에 추석 연휴 전 가격을 10%가량 올렸다. 보통 명절이 지나면 가격이 내려가는데 올해는 그대로라서 인상한 가격을 유지 중이다”며 “식당에 고기를 납품하고 있는데 ‘다른 곳은 가격을 내렸는데 왜 그대로냐’고 묻는 손님들도 있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싶어도 돼지 단가가 오른 탓에 가격을 내릴 수가 없다. 하루 빨리 물가가 안정됐으면 하는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1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백반을 판매하는 식당들도 최근 음식값을 인상했다. 7년째 시장에서 백반집을 운영 중인 한모(53)씨는 “식자재비뿐만 아니라 공공요금도 급격하게 올라 ‘타산이 안 맞아 더 이상 이렇게 못 받는다’고 단골손님들

에게 토로했다. 단골들과 상의 후에 백반 가격을 1000원 인상했다”고 전했다.

‘시장은 저렴해야 한다’는 이미지 탓에 손님이 떨어질까봐 손해를 보면서도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일부 시장 상인들은 가격 인상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죽발을 파는 김윤희(49)씨는 “동네 마트나 식당보다 저렴하게 음식을 구매하고자 오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쉽지 않다. 최근 식자재값이 많이 올라 가격 인상을 고민했지만, 결국 1년 전과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소 등 식재료를 판매하는 이모(68)씨도 “이윤을 조금만 남기고 최대한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데도 ‘비싸서 못 사겠다’고 말하는 손님들이 많아 마음대로 가격을 인상할 수가 없다. 시장을 주로 찾는 고객들의 연령층이 정해져 있다 보니 손님의 요구에 최대한 맞춰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고 토로했다.

▶ 2면에 계속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2024

찾아가는 ‘여순사건 바로알기 골든벨’ 개최

전남일보 올해로 76주년을 맞은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진실을 바로알고 확산하기 위해 전남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여수·순천 10·19 사건’ 골든벨을 개최합니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임을 확인하고 그 진실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골든벨 행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행사명: 2024 찾아가는 여순사건 바로알기 골든벨

일시 및 장소

- ① 2024년 10월 17일(목) 13:30~15:10 / 여수 무선중학교
- ② 2024년 10월 21일(월) 13:40~15:20 / 순천 별량중학교

진행 방법: 개인별 서바이벌 퀴즈 골든벨 대회

시상 내역: 골든벨 수상자 시상품 제공

※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주최/주관: 전남일보·전일엔컬스

후원: 전라남도·전라남도교육청



장성 꽃축제 한글날 휴일인 9일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화사하게 핀 해바라기, 코스모스, 백일홍 등 가을 꽃길을 거닐고 있다. 황룡강 가을꽃축제는 ‘오색연화’를 주제로 오는 13일까지 열린다. 김양배 기자

작년 R&D 예산, 광주 2.1%·전남 1.4% ‘최하위권’

조인철 “수도권 집중 불균형 심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 갑)은 9일 “지역 R&D(연구&개발) 예산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하다”며 “지난해 광주와 전남은 예산 비중이 1~2%로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 R&D 예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동안 지역 R&D 예산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7개 광역 시도에서 집행된 R&D 예산의 34.7%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덕연구단지 위 치한 대전을 포함하면, 대한민국 R&D 투자 62.4%가 집중된 셈이다.

반면,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광역 지

자체의 경우 10%를 초과하는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광주는 지난해 예산 비중이 전체의 2.1%에 불과해 17개 광역단체중 12위에 머물렀고, 전남은 1.4%로 제주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광주와 전남은 수도권에 비해 R&D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하고, 소재한 기업의 숫자도 적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난 5년 동안 이뤄진 예산 배분은 오히려 줄거나 정체 수준이다.

조 의원은 “수도권 위주의 예산 편중이 심화되면 지방 R&D는 동력을 잃고, 과학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의 기회를 놓칠 뿐 아니라,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다”며 “R&D 예산부터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제30회 녹색환경대상 공모

환경지킴이를 찾습니다

- 공모부문**
- 생활속 환경실천** 일선 생활현장에서 환경보전 및 기후위기 개선에 노력한 개인·단체
 - 자연 환경보전** 바다 및 강(도랑 포함), 먹는 물, 미세먼지, 대기, 폐기물 등 관련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개인·단체
 - 환경교육** 환경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의식 제고에 기여한 개인·단체
 - 서한태환경상** 지역 환경운동의 선구적인 역할과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기여한 개인·단체

- 시 상**
- 종합대상 (환경부장관상)** 상장 및 상금 500만원
 - 부문별 대상** 상패 및 상금 300만원 (개인은 200만원)
 - 서한태환경상** 상패 및 상금 100만원

- 공모대상** 해당 분야에서 묵묵히 노력해온 사·도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환경단체, 공직자, 학교, 기업체 등 자격제한 없음

- 제출서류**
- 개인 인적사항 (법인은 연혁·등기부등본) 1부
 - 공적조서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www.jnilbo.com) 1부
 - 공적 증빙 자료·사진 각 5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공적조서를 제외한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접수기간** 10월 7일(월) ~ 11월 15일(금)
- 수상자발표** 12월 2일(월) 전남일보 게재
- 시 상 식** 12월 11일(수) 예정
- 접수·문의** 우편접수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 6층 사업본부 전화 (062) 519-0730 팩스 (062) 510-0436

- 주최: 광주은행 全南日報
- 주관: 전일엔컬스
- 후원: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